

농림부 업무보고

농업과 농민이 낙후 된 것은 정부와 정책의 책임이 커, 반성하는 자세로 해결의 길을 만들자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힘들게 노력해왔습니다.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가 정보통신처럼 융성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중이 낮아지는 분야여서 고충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농업과 농민의 현실이 한심하다고 말할 만큼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과 농민이 어려운 것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 등으로부터 낙후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정 역사를 보면 공무원 정부가 책임을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 수 있으나 조직 전체로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개인과 조직의 책임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예산·경제부처와의 관계에서 서로 조화롭게 조정이 안 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건들을 얘기하기 전에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자세로 분발해주십시오. 선배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반성의 자세로 출발해야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장관도 그렇고 저도 새로 대통령이 돼서 농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쟁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은 적절했습니다. 선거와 인수위 과정에서 나도

공부를 해서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현안도 해결하고 농정 방향도 따져봅시다. 보고라기보다는 모색하는 자리로 보고 토론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경제부총리, 민주당 정책위의장 순으로 죽 소개한 뒤 함께 참석한 민간 사이드 참석자들 소개) 인수위 시절 산업정책 분야인 2분과를 맡았던 김대환 교수가 앞으로는 정책 전반에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빈 자문위원 이시죠. 도움 받았는데 그 동안 얼굴을이봉수 위원장은 직함이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농업현장에 조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경남 지부장 시절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인사하고 계속 자문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조언 받으려 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눈을 부라려서 거북할 때도 있으나 현장이 정확합니다. 비판적 조언 방향으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